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이 8월 11일 지울스님을 위로하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찾아왔다.



여연·수경 스님과 박광서 교수가 8월 11일 지울스님에게 청와대와 '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 중단' 합의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천성산대행위 선정현 사무국장 지울 스님이 8월 12일 오후 '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 중단' 합의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울 스님이 8월 12일 인천지역 '도룡봉의 친구들' 학생들에게 '초록의 공명' 플래카드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하며 버틸 수 있는 인간 한계는 18일. 삼풍백화점 사건 때 박 모양이 18일만에 구조된 적이 있다. 그러나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의 건강, 정신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대개 40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40일 벽을 넘어서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단식 후유증을 앓거나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다. 8월 13일 지울 스님의 3차 단식이 45일째로 접어들었다.

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말 뿐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등 스님들과 불교단체 대표들도 잇달아 지울 스님을 건강을 챙기기 위해 찾아왔다.

날 공사가 천성산의 턱밑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40일 동안 하루 3천배기도, 8일간의 삼보일배(부산에서 천성산 화엄발까지), 100일 동안의 공사현

은 것이다.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한 겨울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특별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16개 능과 천성산에 귀중한 생명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스님은 그

문제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노선검토를 약속하고 만든 '노선검토협의회'에서 이해 당사자인 지울 스님 등이 배제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몇 년 동안 천성산 문제

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 단식을 계속할 수 없다"며 어처구니 없어 했다. 스님에게 단식의 육체적 괴로움은 아무 것도 아니다. 정작 견디기 힘든 것은 몸이 해와 무관심이다. 지울 스님은 천성산 살리기 운동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마음, 나의 편안함을 위한 다른 사람의 희생에 무감각하게 여기는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천성산 살리기'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8월13일로 단식 45일째...지울스님 청와대 앞 시위 현장

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 중단 합의 무산

공사 중단·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정부·건설회사 '받아들일 수 없다'

"최소 6개월은 환경영향평가 해야"

육체 고통보다 주변의 무관심 '괴로워' 희생에 무감각한 현실 바뀔때 까지...

2003년 봄 38일 단식과 가을 45일, 그리고 2004년 6월 30일부터 시작한 단식이 다시 한번 45일을 넘어선 것이다. 1년반 사이에 한번도 하기 어려운 단식을 무려 3번씩 120여 일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뼈가 피부에 달라붙고 목은 오래 전에 쉬어 버렸다. 부스럼이 온몸에 도져 자리에 눕기도 쉽지 않다. 영양 부족으로 심한 두통이 밀려와 잠을 자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 1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는 보통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데 스님은 간장 쉼인 물만 마시며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다.

8월 8일 단식이 40일을 넘기면서 불교계에서는 자칫 지울 스님을 잃을 수도 있다는 긴박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든 단식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님은 요지부동. '천성산

종교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염려하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이 모여 중재안이 8월 10일 불교대표들에 의해 청와대와 건설회사에 제시되고 11, 12일 양일 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합의를 이루기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스님이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위한 6개월 동안의 천성산 고속철 구간 공사 중단'에 대해 정부와 건설회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왜 스님은 3번씩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스님이 이번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관동터

장 농성을 했지만 정부는 변하지 않았다.

지울 스님의 6월 30일부터 청와대 앞 단식 정진에 들어간 요구조건은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공사중단과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는 것이다. 스님은 적어도 6개월 동안 공사를 중지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이다. "과연 정부가 건설회사의 말대로 천성산이 쓸모없는 산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스님은 예전에 했던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천성산에 관동터널을 뚫기 위해 고속철도공단이 실시했다는 환경영향평가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런 환경영향평가가 거졌던 것만 사실은 알리기 위해 천성산의 도룡봉들을 살리자는 '도룡봉의 친구들' 모임을 만들었다.

지울 스님은 "철도를 우회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천성산을 뚫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이 파괴됐을 때 그 손해는 아무 다 말할 수 없죠"라고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공사 백지화 약속을 깨뜨린 것도 지울 스님이 보기에 너무나 부정직한 일이다. 지울 스님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먼저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

를 놓고 싸워왔던 사람들을 배제한 채 일부 환경단체와 건설회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시키려 하고,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단식이 한달이 넘을 때까지 청와대는 철저히 무시하려는 듯 무대응,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가끔 들려오는 소리는 "총무원과 청와대, 건설회사 사이에서 이야기가 다 끝났다", "지울 스님이 뒤로 뒀을 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뿐이다. 스님은 "단식을 해본 사람은 다 안다. 한번 음식이 들어가 위

"내가 청와대에 오기 전부터 '천성산 살리기'가 끝난 싸움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렇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요. 바른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긴다고 믿어요. 우리의 주장이 옳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다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가 곧 부처'라는 믿음이 성불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제 천성산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나가는 운동을 하는 거죠. 도룡봉 소송인단 100만인 서명 운동 같은 게 그것입니다."

어찌면 이 길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스님은 8월 13일 합의의 도출에 실패하자 14일부터 청와대 앞 그늘에서 벗어나 무더위 속 정진을 할 생각이다.

글=강유신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녹색공명
언제 일런지...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30-0705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화유람선으로 이르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삼포에 위의 하얏고 당시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차림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차림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운문석굴 5일 69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69만원

오공포환내역(공동여행)

- 포환사항: 왕복 선박료, 호텔(4성, 4실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공료,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선내 포함)
- 불포환사항: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비, 개인경비

오회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 와불사, 옹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 590,000원

오회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라궁, 보녕사) ₩ 520,000원

오회유람선 위동페리로 매주 목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 영암사, 잠산사) ₩ 390,000원